

「행정도시 법적지위 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 참석

육동일 원장은 지난 6월 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도시 법적지위 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에 참석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등 5개 학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육동일 원장은 정부 발주 용역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세종시는 기초단체 지위로 잔여지가 포함돼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노래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

육동일 원장은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원, 최남인 대전시 예총회장, 주정관 대전시 연예협 회장, 양희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 17명과 지난 6월 7일 대전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대전의 노래’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가칭 ‘대전의 노래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했다.

추진위원들은 이날 그동안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가 5~6번 제정됐으나 부르기가 어렵고

대중적 요소가 적어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면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세월이 가도 애창될 대전의 노래를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발표

육동일 원장은 지난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조직?인사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제주도의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 특별자치도 1년을 맞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연방주 수준의 자치모범도시와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 등이 강구됐다.

「민선4기 1주년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참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8월 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민선4기 1주년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에서 직접 작성한 공약 이행계획서와 공약이행도 평가서를 바탕으로